

보도시점 : 2023. 11. 29.(수) 11:00 이후(11. 30.(목) 조간) / 배포 : 2023. 11. 29.(수)

##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

-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... 강우·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
-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... 공사관계자 책임·역할도 커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**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(KCS 14 20 10) 개정(안)**과 **가이드라인(안)**을 마련하고, 11월 30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**설명회\***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\* 주최 : 국토교통부, 주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, 한국콘크리트학회

□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, 학계,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\*하며,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(안)과 가이드라인(안)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,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.

\* 발주청(지방국토관리청·지자체 등), 학계(한국콘크리트학회·대한건축학회 등), 업계(건설협회·주택협회·레미콘공업협회 등), 기술자 단체(건축 및 토목구조기술사회 등)

□ 한편,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김병석)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,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,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.

○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(안)은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\*를 사전, 사후로 구체화하고,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(감리)의 검토·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
\* (사전)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(시공사) → 책임기술자(감리) 승인

\* (사후)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 →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(시공사)

○ 또한, 가이드라인(안)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,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\*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.

\* (타설 전)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, (타설 중)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

\* (타설 후)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(견본)로 압축강도 시험

-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”라며, “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,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주무관	정승현 (044-201-3561) 양성모 (044-201-3568) 한승한 (044-201-3571)
관련 기관	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	책임자 담당자	센터장 연구위원 연구원	이영호 (031-910-0734) 김희석 (031-910-0056) 안준혁 (031-910-0531)



## 참고 1

##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(안)

### □ 추진 배경

-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('23.4) 등 건설사고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지적 지속

☞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관계자별 역할, 현장 조치 필요사항 및 책임기술자 검토·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

### □ 추진 경위

-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구성('23.8)
-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TF 회의('23.8 ~)

### □ 주요 내용

- (용어정의 보완)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시공자(현장소장)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, 책임기술자 정의 구체화
  - 「건축법」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감리자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,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 명확화
- (타설 원칙 정립)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적절한 조치 시 책임기술자(감리) 승인을 받아 타설토록 규정
- (유해한 영향 구체화) 강우,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“강도·내구성·표면 불량”으로 구체화
- (사전·사후 조치 제시) 강우, 강설 시 공사관계자가 조치할 사항을 타설 전, 후로 나누어 시공 전반에 걸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행

## 참고 2

##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(안)

### □ 추진 배경

-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강우, 강설 시 현장 조치사항 및 공사관계자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

\* 가이드라인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회의에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함께 마련

### □ 주요 내용

- (사전 조치)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조치, 현장 천막설치 등 강우, 강설 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
- (사후 조치)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(견본)로 압축강도시험 실시
- (기록관리 강화)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·검사 실적을 관리하고, 사전·사후 조치 사항 등 기록 철저
- (공사관계자 역할 강화) 공사현장을 공공(건진법), 일반(건축법), 주택(주택법) 현장으로 구분 → 책임기술자 및 인·허가관청 등 역할 제시

### <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>



<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>



<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>